

양보 없는 협상 난망...광주시 주도로 불씨 다시 살려야

해 넘기는 '광주형일자리' 내년엔 어떻게 될까

올 연말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던 '광주형 일자리 완성자 공장 설립사업'(이하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 6일 최종 협약서 조인식이 취소된 이후 광주시와 현대자동차는 공식 만남 없이 20여 일을 허송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 여야 정치권은 2019년 정부 예산에 광주형 일자리 사업 관련 국비를 반영하고, 이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일자리 2만 6000개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하지만 세계 굴지의 자동차 대기업 현대는 지역노동자에 발목이 잡힌 광주시에 더이상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노동계 역시 친노동적인 기업이 아니라면 굳이 환경할 필요가 없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불씨가 사그라들고 있는 가운데 주변에서 부채질만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시는 뾰족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노동계와 정부, 현대차의 눈치만 살피고 있다. 이미 현대차와 지역노동계의 '갑취진 패'가 공개된 상황에서 어느 한 쪽의 완전한 양보가 없는 한 협상 재개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최종 협약서 조인식 취소 후 20여 일-"진전 없다"=지난 6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기로 한 최종 협약서 조인식이 취소된 뒤 표면상 광주시와 현대차는 공식적인 만남을 갖지 않았다. 다만 전화로 상호 입장을 전달하고 있는 정도다. 특히 현대차에서 광주형 일자리사업을 진두지휘했던 정진행 현대차 전략기획담당 사장이 얼마전 현대건설 부회장으로 승진하면서 변수가 생겼다. 현대차 내부에서조차 이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존재하고

협약 조인식 취소 후 20일째 진전 없어

광주시, 현대차·정부·노동계 눈치만

있는데 갑자기 '수장'이 사라지면서 내부 동력도 약화됐다는 분석이다. 아직 현대차에서는 누가 이 사업을 이끌지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도 최근 인사에서 현대차와의 협상에 처음부터 참여한 이상배 전략산업국장을 복구청 부구청장으로 인사조치했다.

현대차 내부에서는 "광주시에 대해 다시 신뢰를 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 지역인사, 시민 대다수 "현대차 투자 받아야"=노동전문가, 지역주요 인사 및 시민 대다수는 우선 현대차 투자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문제가 된 '노사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향후 설립될 합작법인(광주시, 현대차 등 투자)과 합작법인 및 공장에서 근무하게 될 노동자들이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는 이야기다.

지역노동계가 노사민정협의회에 한 축으로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향후 합작법인 및 공장 운영에까지 과도하게 관여해서는 현대차는 물론 추가 투자 유치와 지속가능성도 담보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다. 적정임금, 적정근로시간 등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합의한 이상 지역 각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현대차가 발길을 되돌릴 명분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노동계가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노사상생발전협정서 제1조 2항은 '신설법인 노사

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은 초기 경영안정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누적 생산목표대수 35만대 달성시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지역노동계는 3~5년간 임금단체협상을 유예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강력 반발했다.

일단 2019년 예산에 ▲행복·임대주택 건설 ▲진입도로 개설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건립 ▲공동 직장어린이집 개원 ▲개방형체육관 신축 등 광주형 일자리에 필요한 5개 분야 예산이 반영돼 있어 희망적인 요소는 남아 있다. 최근 광주를 찾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범정부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정부 여당에서도 추가 협상을 통한 신속한 타결을 바라고 있는 것도 기대감을 끌어올리고 있다. 경제 문제로 연일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 보면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전국적으로 제조업의 재부흥을 이끌만한 매력적인 수단이기도 하다.

다만 광주시가 이번 협상 과정에서 보여준 현대차와 지역노동계 사이에서의 '줄타기 전략'으로는 타결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시가 '제1투자자이자 운영주체'로서 중심을 잡고 투자 유치 단계에서는 투자자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고, 운영과정에서는 지역노동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전략이 시급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한 지역인사는 "광주형 일자리는 지자체가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투자자와 노동계를 이끌고 가야 가능한 구조"라며 "대기업이나 노동계 모두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한만큼 광주시가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 경남 양산시 덕계 성당에서 열린 성탄 전야 미사에 참석해 어린이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10년 숙원 흑산공항 건설 환경부에 또 다시 발목

서울지방항공청 계획안 철회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자동폐기

또 찬반논란...지역여론 부글부글

지역민들의 10년 숙원인 흑산공항 건설 사업은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발목이 잡혔다. 환경 문제 등 찬반 논리가 팽팽히 맞서면서 국립공원위원회가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고, 사업자인 서울지방항공청도 계획안을 보완해 다시 제출하기로 하면서 심의 안건이 자동 폐기됐다. 이로써 햇수로 10년째를 맞이하는 흑산공항 건설 사업은 또 다시 기약 없이 표류하게 됐다.

◇건설 비용보다 편익이 2배= 흑산공항이 처음 추진된 것은 지난 2009년. 국토해양부가 흑산공항 검토용역을 개시하며 신호탄을 쏘았다. 이후 2011년 1월 고시된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흑산도 등 소형공항의 필요성이 명문화됐다.

2013년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흑산도 공항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조

사 결과, 편익-비용(B/C)비율이 4.38로 나오며 공항 건설 가능성을 한층 높였다. 공항 건설에 따른 비용보다 이익이 4배 이상 많다는 뜻이다. 평가팀은 또 흑산공항의 지역 생산유발효과를 약 1535억원, 고용유발효과 1189명으로 봤다. 이후 계획 보완과정에서 B/C는 지난해 2.6, 올해 1.9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1보다 크다. 그러나 올해 들어 공항 건설을 결정할 국립공원위는 7월에 이어 9월에도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결국 중단되고 말았다.

◇내년 첫 삽 목표 꼼꼼히 보완= 흑산공항 사업 중단은 표면적으로 사업자인 서울지방항공청이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계획 변경 재보완 서류'를 철회했기 때문이다. 심의 안건이 사라지면서 국립공원위는 자동 폐기화된 것이다. 하지만 내면적으로는 국립공원위원회의 반대가 많아서다. 이대로 표결한다면 사업 자체가 폐기될 처지여서 위원들을 설득할 시간을 벌기 위해 작전상 안건을 철회한 것이다.

서울지방항공청은 통행량 데이터, 자연환경 조사, 활주로 안전성,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더 보완한 서류를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는 서울지방항공청이 재보완 서류를 추가 보완해 다시 제출

하면 심의를 다시 열어 절차를 속개할 방침이다.

◇개발이나, 보전이나 찬반 논란 불가피= 서울지방항공청의 보안 작업이 얼마나 걸릴 지 불투명한 탓에 흑산공항 건설을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남도와 신안군, 지역주민들은 섬 주민 교통 불편 해소와 관광 활성화를 이유로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전남지사 시절 추진했던 사업이어서 지역 여론이 들끓고 있다.

신안군은 국립공원계획변경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환경과 안전, 경제분야에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관련 교수 및 전문가 15명으로 흑산공항 정책자문단을 구성, 정책 자문과 대응전략을 짜고 있다. 반면 환경단체 등은 동아시아권 철새의 75%가 머무는 생태보고가 파괴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사업이 폐지된 것이 아니라 잠시 중단된 것인만큼 반대 논리를 해소할 객관적 자료를 보완해 다시 심의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박정국 기자 jwpark@kwangju.co.kr

문대통령 "나의 행복이 모두의 행복이 되길"

박노해 시 인용 성탄메시지

문재인 대통령은 성탄절인 25일 나눔을 강조한 박노해 시인의 시 일부를 인용하는 것으로 성탄 메시지를 대신하면서 "성탄절 아침, 우리 마음에 담긴 예수님의 따뜻함을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박노해 시인의 '그 겨울의 시' 일부를 포함한 성탄 메시지를 페이스북을 비롯한 SNS에 올렸다. 문 대통령이 인용한 시구는 '문풍지우는 겨울밤이면 할머니는 이불 속에서 혼자말로 중얼거리시네/ 오늘 밤 장터의 거지들은 캔창을랑가/ 뒷산에 노루 토끼들은 굶어 죽지 않을랑가/ 아 나는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냇물을 들으며 잠이 들곤 했었네' 부분이다.

문 대통령은 "애뜻한 할머니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며 "나의 행복이 모두의 행복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올린 메시지는 지난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서 선물 받은 풍산계 한 쌍 중 암컷인 곰이가 최근 낳은 새끼 여섯 마리가 목도리를 두른 사진도 함께 게재됐다. 목도리는 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20일 청와대로 초청한 광주 서광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뜨개질로 만들어준 것이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과 김 여사는 성탄 전야인 24일 경남 양산의 덕계성당에서 미사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 부부는 독실한 천주교 신자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가까운 무안에서 출발해요~

이제 편리하게 가까운 무안공항에서 조이투어와 함께 하세요! 주~우~욱~~~

무안 ↔ 기타큐슈 온천 패키지 특가 399,000원 부터~

가까운 무안에서 일본 기타큐슈 온천여행

TW티웨이 항공 월/화/수/목/토/일 매일 출발

오후출발(화,금,토) 무안(20:20) → 기타큐슈(21:30) / 기타큐슈(23:00) → 무안(00:15)

- ◆ 기타큐슈, 벳부, 유후인 2박4일 [정통] 529,000원 ~ / [품격] 599,000원
- ◆ 기타큐슈, 벳부, 유후인 3박5일 [정통] 699,000원 ~ / [품격] 829,000원

무안 - 기타큐슈 크리스마스 연휴

이 가격 실화? 399,000원~ 문의 ☎ 1522-1901

무안 ↔ 다낭 직항전세기 [매주 화(3박4일) / 금(3박5일)]

화 출발 무안(08:40) → 다낭(11:15) / 다낭(14:40) → 무안(20:30)

금 출발 무안(21:35) → 다낭(00:10) / 다낭(01:50) → 무안(07:40)

VN 베트남 국영항공(스카이팀) 차별화된 기내 서비스, A-321-200(비즈니스 13석, 이코노미 161석) 기내식, 음료, 맥주, 기내담요, 베개, 비디오 상영

[실속] 다낭, 후회, 호이안 4일 899,000원~ / 5일 949,000원~

[노팁,노음선] 다낭, 후회, 호이안 4일 1,099,000원~ / 5일 1,149,000원~

무안 ↔ 오키나와 환절기는 따뜻한 남쪽으로~

12월 22일 ~ 2월 23일 매주 화,목,토 출발

- ◆ 화/목요일 출발 2박 3일 999,000원~
- ◆ 토요일 출발 3박 4일 1,249,000원~

무안 ↔ 대만 정기편(제주항공)

매주 월,화,수,목,금,토,일 매일 출발

- ◆ [노팁,노음선] 스펀,단수이,야류,지우펀 699,000원~
- ◆ [고품격] 화련,태로각,지우펀,야류 699,000원~

무안 ↔ 오사카 정기편 제주항공으로 떠나는 나만의 자유여행

[매주 월, 목(3박4일) / 수, 금(2박3일)]

[실속(세미더블)] 오사카, 나라, 교토 899,000원~

오사카, 와카야마, 교토, 나라 3박4일 999,000원~

무안 ↔ 나트랑 2/2일 부터 출발

[휴양+노쇼핑] 나트랑 3박 5일 890,000원~

[관광+휴양] 나트랑, 달랏 3박 5일 1,050,000원~

무안 ↔ 방콕 · 파타야 정기편(제주항공)

[매주 수, 목(3박5일) / 토, 일(4박6일)]

- ◆ [실속] 899,000원~ ◆ [품격] 1,099,000원~

무안 ↔ 코타키나발루(제주항공)

목요일 출발(3박5일) / 일요일 출발(4박6일)

[호핑팩] 549,000원~ / [품격팩] 699,000원~

무안 ↔ 세부(제주항공)

월요일 출발(2박4일) / 화,수,금,토 출발(3박5일)

[세미팩] 429,000원~ / [품격팩] 699,000원~

※모든 여행 상품에 따라 포함사항과 불 포함사항이 다르오니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 양국정부인허가조건 ※ 운항スケジュール 항공사 및 현재지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출발 날짜와 인원 수에 따라 상품 가격이 다르오니 홈페이지 및 전화상담을 통해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 기획여행 보증보험 가입 업체 등록번호: 제2003-1호

◆ 공동조간: 여행경비 1인 기준, 여행보험 가입(해외상품: 1억원, 국내상품 5천만원), 관광진흥개발기금,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 교통편: 항공 및 선박, 전열버스 / 전 지역 ◆ 상기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억원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경비 가입 업체 ◆ 예약시 계약서(취소 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경비업(인), 기사/가이드 통사로, 선택관광, 직권 비자발행 별도 ◆ 최소 출발인원: 상품에 따라 다름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투어

JOY TOUR